

Research Center

2016년 12월 20일

투자전략 Daily

• 글로벌 전략

손정의의 빅 픽처(big picture)

• 중화권 증시 동향

중립적 통화정책 전망에 중화권 증시 약세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백산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모두투어 외 5개 종목

• 산업/기업분석

면세점, 헬스케어, LG유플러스, 농심, 씨엠에스에듀,
신세계, 현대중공업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자산배분전략 | 노근환 ☎ 3276-6226
투 자 전 략 | 박소연 ☎ 3276-6176
시 황 분 석 | 김대준 ☎ 3276-6247
계 량 분 석 | 안 혁 ☎ 3276-6272
파 생 / E T F | 강승철 ☎ 3276-6181
스몰캡전략 | 정훈석 ☎ 3276-6232
이머징마켓 | 윤항진 ☎ 3276-6280
중 국 시 장 | 최설화 ☎ 3276-6274
경 제 분 석 | 박정우 ☎ 3276-6229
채 권 분 석 | 오창섭 ☎ 3276-6174
해 외 채 권 | 박승진 ☎ 3276-6560
크 레 디트 | 김기명 ☎ 3276-6206
원 자 재 | 서태종 ☎ 3276-6184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2/13(화)	12/14(수)	12/15(목)	12/16(금)	12/19(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35.98	2,036.87	2,036.65	2,042.24	2,038.39
	등락폭	8.74	0.89	-0.22	5.59	-3.85
	등락종목	상승(상한)	562(1)	379(0)	595(0)	384(0)
		하락(하한)	268(0)	430(0)	214(0)	435(0)
	ADR	92.05	86.90	91.58	95.09	99.79
	이격도	10 일	101.79	101.56	101.28	101.20
		20 일	102.37	102.27	102.11	102.22
	투자심리	70	70	60	70	70
	거래량 (백만 주)	383	384	300	290	248
	거래대금 (십억 원)	4,221	3,393	3,291	3,944	2,941
코스닥	코스닥지수	611.09	612.47	620.61	622.08	622.77
	등락폭	8.01	1.38	8.14	1.47	0.69
	등락종목	상승(상한)	768(2)	535(3)	841(4)	508(3)
		하락(하한)	313(0)	555(0)	256(0)	562(0)
	ADR	92.37	92.66	93.96	94.22	94.35
	이격도	10 일	103.49	103.44	104.34	103.97
		20 일	102.01	102.37	103.80	104.03
	투자심리	60	60	70	80	90
	거래량 (백만 주)	638	698	597	771	641
	거래대금 (십억 원)	3,369	3,241	2,997	3,672	3,108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457.0	883.5	573.1	114.2	81.1	101.3	65.5	7.0	204.1
	매도	1,378.3	881.0	650.2	137.1	84.9	145.5	94.0	16.1	172.6
	순매수	78.7	2.5	-77.2	-22.9	-3.9	-44.2	-28.5	-9.2	31.4
	12월 누계	-1,338.4	706.2	554.3	437.2	-131.1	-534.7	21.0	-41.1	802.9
	16년 누계	-8,499.1	10,530.6	-5,000.3	-688.9	928.0	-6,192.9	-1,097.0	-997.3	3,048.2
코스닥	매수	2,867.0	146.8	88.8	23.3	6.1	14.1	7.2	1.5	36.7
	매도	2,854.1	148.1	99.8	31.6	16.3	21.9	14.5	2.4	13.0
	순매수	13.0	-1.3	-11.0	-8.3	-10.2	-7.9	-7.3	-0.9	23.6
	12월 누계	-130.6	125.6	51.4	37.1	4.4	-12.1	16.4	0.7	4.8
	16년 누계	5,760.4	790.0	-4,362.0	-216.3	-321.9	-1,649.6	-721.6	-151.8	-1,301.1

손정의의 빅 픽처(big picture)

2016년 Target KOSPI	2,180pt
12MF PER	10.21배
12MF PBR	0.95배
Yield Gap	8.1%P

- ▶ 소프트뱅크의 과감한 IT투자결정 배경은 100% 자회사 ARM홀딩스의 존재 때문
- ▶ ARM을 통해 IT투자확대 및 IoT 산업성장의 직접적인 수혜가 소프트뱅크로 연결
- ▶ 4차산업혁명 성장 본격화, AI솔루션 및 저전력반도체 핵심기술 기업에 주목

■ 소프트뱅크그룹 손정의(孫正義) 회장의 과감한 행보에 주목

소프트뱅크그룹 손정의 회장
 과감한 글로벌 투자결정으로
 이슈의 중심에 서 있어

일본 소프트뱅크그룹(Softbank Group)의 손정의(일본명: 손마사요시) 회장의 최근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손정의 회장은 지난 16일 러일 정상회담에 맞춰 일본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과 만나 러시아로의 IT투자 관련 협의를 나눴다. 또한, 지난 6일에는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과 미국 내 500억달러 IT투자와 5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해 약속했다. 이외 지난 10월 사우디 국부펀드와 공동으로 1,000억달러 규모 IT투자펀드(소프트뱅크 비전펀드)를 조성했고, 한중일 및 러시아, 몽골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super grid) 프로젝트의 내용도 공개했다. 지난 7월에는 영국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 ARM홀딩스(ARM Holdings)를 3.3조엔에 인수하는 등 글로벌 이슈의 중심에 서 있다.

〈표 1〉 16년 6월부터 소프트뱅크(손정의 회장) 주요 의사결정

시기	내용
2016년 6월	소프트뱅크, 차기 CEO로 예상됐던 니케시 아로라(Nikesh Arora) 부사장 퇴임, 손정의 회장 경영 지속 및 글로벌 투자 확대 의지 피력
2016년 7월	영국 반도체 기업 ARM 홀딩스를 3.3조엔에 100% 지분 인수
2016년 9월	손정의 회장, 한국 IT 산업에 향후 10년 내 5조원 투자 발표
2016년 10월	사우디 국부펀드와 공동으로 1,000억달러 펀드 조성(사우디 450억, 소프트뱅크 250억, 나머지 민간 펀드 250억달러 출자 계획)
2016년 10월	한/중/일/몽골을 연결 '원 아시아' 슈퍼그리드 계획 발표
2016년 12월	손정의 회장, 인도 IT 및 에너지(태양광) 산업에 100억달러 투자 발표
2016년 12월	손정의 회장, 미 트럼프 당선인에 미국 내 500억달러 IT투자 및 5만개 일자리 창출 약속
2016년 12월	애플,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에 최대 10억달러 투자 협의
2016년 12월	빌 게이츠 주도 10억달러 규모 신재생 에너지 벤처 BEV(Breakthrough Energy Ventures)에 소프트뱅크 투자 검토
2016년 12월	손정의 회장,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내 IT투자 협의

자료: 산업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1]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과 트럼프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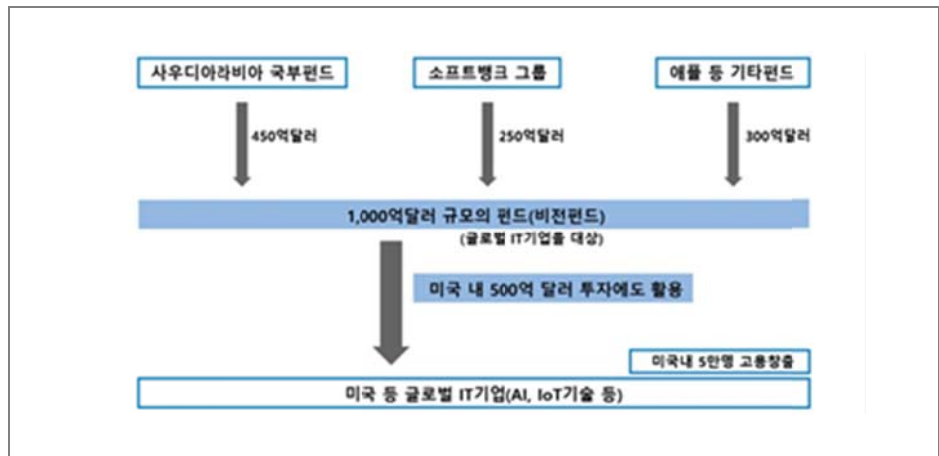
자료: 언론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과 푸틴의 만남



자료: 언론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3]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구조 및 활용 방안 전망



자료: 일본경제신문, 한국투자증권

손정의 회장의 의사결정 주요국들의 이해관계에 부합

미국, 사우디, 러시아 등 주요국을 상대로 이뤄진 손정의 회장의 의사결정은 각국의 현재 상황 및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진다. IT산업 육성 및 자국 내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했던 트럼프에게 손정의 회장의 제안은 시의적절 했다. 석유산업 의존도를 낮추고자 중장기 산업체질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사우디에게도 비전펀드를 통한 손정의 회장의 도움이 절실했을 것이다. 소프트뱅크의 ARM홀딩스 인수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해외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켜줄 수 있었고, 러시아 IT투자 및 아시아 스마트 그리드 사업은 러시아의 국제적 고립 탈피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사우디아와의 공동으로 조성하는 비전펀드를 활용해 다양한 투자사업 가능

손정의 회장 입장에서도 이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들은 큰 이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와의 500억달러 IT투자는 T-Mobile 인수(소프트뱅크는 과거 Sprint 인수 이후 T-Mobile 추가 인수를 시도했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반대로 실패)를 위한 초석이라는 분석이다. 푸틴과의 러시아 투자 협의 또한 소프트뱅크가 공들이고 있는 아시아 스마트 그리드사업 확장을 위한 수순으로 판단된다. 특히, 사우디아와 함께 조성하는 비전펀드를 해당 투자들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도 존재한다

[그림 4] 소프트뱅크가 계획 중인 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상도



자료: 언론자료, 소프트뱅크그룹, 한국투자증권

■ 손정의의 빅 픽처: ARM을 통해 4차산업 혁명 주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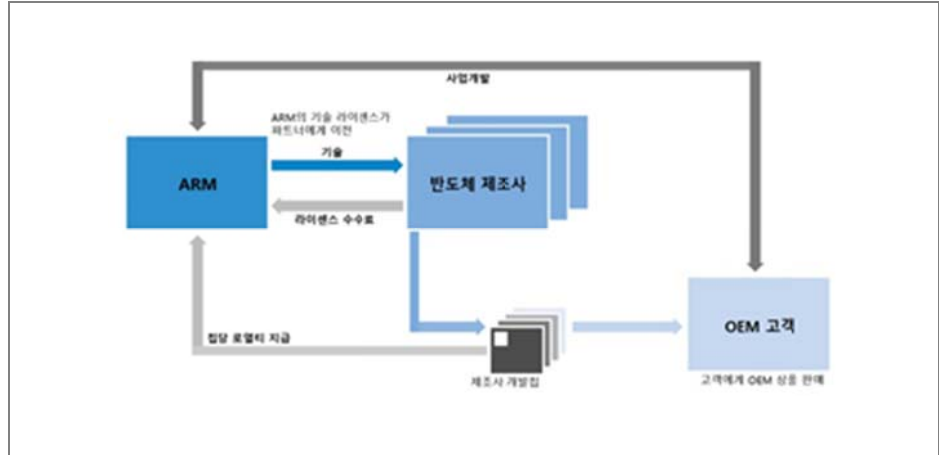
최근의 광폭 행보의 배경은 ARM홀딩스 존재가 있기 때문

미국, 러시아 등 주요국 투자 및 비전펀드의 향후 구체적인 투자처 및 계획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손정의 회장의 최근의 투자의사결정들이 철저히 소프트뱅크그룹에 큰 수혜로 이어지게끔 구조화되었다고 판단한다. 지난 7월 소프트뱅크그룹이 100% 지분을 인수한 ARM홀딩스의 존재 때문이다.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설계(IP) 개발/제공 기업인 ARM 홀딩스

ARM홀딩스는 반도체칩(chip)의 설계 및 IP(Intellectual Property)를 디자인하는 반도체 기업이다. ARM이 개발한 설계(IP)는 메모리, 로직, 아날로그 등 다양한 반도체 제조기업들에 제공된다. ARM의 설계를 제공받은 각 기업들은 커스터마이징과 자체 솔루션을 추가적으로 활용해 최종 반도체 제품을 제조(혹은 아웃소싱)한다. 이와 같은 설계의 제공 대가로 ARM은 제조기업들로부터 설계 사용에 대한 라인센스 비용(license fee)을 청구해 수익으로 인식한다. 수익 수취방식으로는 칩 단위로 0.2~0.4달러씩 청구하거나 다수 설계사용권을 패키지로 구성해 연간 단위로 일괄 청구하기도 한다. 메이저 반도체 기업들의 경우 연간 약 천만달러 규모의 연간 사용권을 ARM에 지불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5] ARM홀딩스 비즈니스 모델



자료: ARM홀딩스,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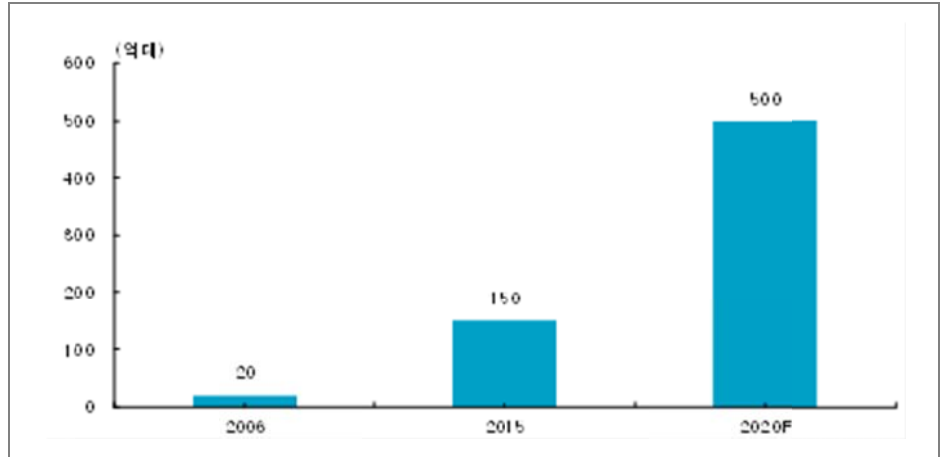
스마트폰 시장 개화로
ARM의 저전력 반도체 기술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기
시작

반도체 산업에서 ARM의 핵심 경쟁력은 저전력, 저비용 반도체 설계 기술에 있다. 지난 2000년대 후반까지 반도체 산업이 인텔(Intel)을 중심으로 고성능 기술개발에만 초점을 맞추는 동안 ARM은 반대로 저전력, 저비용에 특화된 기술을 지속 개발해 왔다. ARM은 90년대를 거치며 애플(Apple)의 Newton 등의 휴대용 컴퓨터, 노키아(Nokia)의 피쳐폰 등에 적용되는 소형의 저전력/저비용 반도체 설계를 공급했다. 이와 같은 ARM의 기술적 특성은 반도체 산업이 전력소모에 민감한 스마트폰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며 각광을 받는다. 과거 PC기반 반도체 시장 내 강자였던 인텔이 모바일 기반 시장에서 퀄컴(Qualcomm)에게 주도권을 내준 것은 퀄컴이 ARM설계 기반의 반도체를 제조했기 때문이다.

저전력 반도체 솔루션은
IoT 시장 성장을 위한
핵심 기술

손정의 회장의 투자결정이 소프트뱅크에 큰 수혜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ARM이 강점을 지닌 저전력 반도체의 수요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IT시장의 패러다임은 IoT(Internet of Things)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IoT시장의 개화를 이끄는 핵심기술은 AI(Artificial Intelligence)이겠지만, 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저전력 반도체 기술도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IoT 환경 하에서는 대다수의 디바이스들이 전력소모 이슈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컨대 스마트 팩토리(factory) 등 산업용 IoT 환경의 네트워크 장비의 경우, 충전 없이 10년의 수명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단계부터 저전력 기술이 중요해지는 이유이다.

[그림 6] IoT환경에서의 네트워크 연결 디바이스 수: 대다수 기기들에서 저전력 솔루션 구현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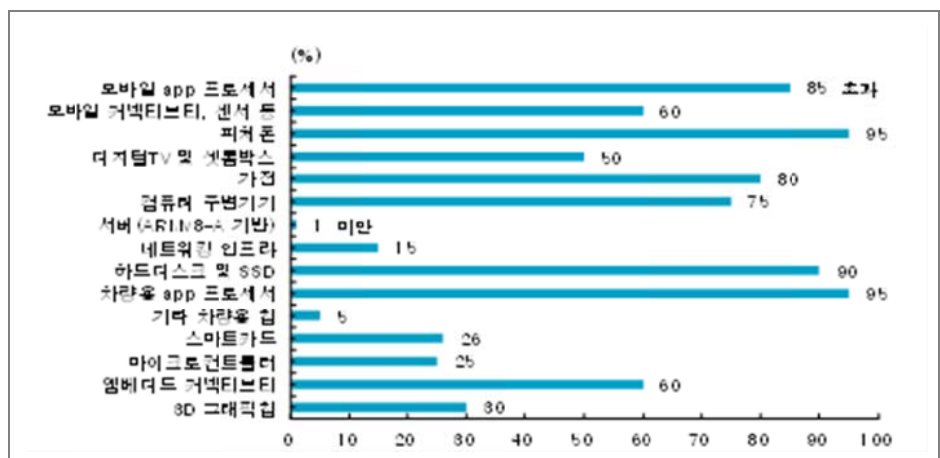


자료: SEAJ, 한국투자증권

ARM을 100% 소유한
소프트뱅크가 IoT 산업에서
갖게 될 영향력 막대할 전망

손정의 회장의 비전펀드 및 주요국 IT투자는 AI 및 IoT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이는 IoT산업의 성장속도를 더욱 가속화 시킬 전망이다. IoT산업의 성장은 저전력 기반 반도체 수요의 급증으로 이어져 산업 내 높은 점유율을 확보한 ARM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특히, 소프트뱅크는 ARM의 지분 100%를 인수해 회사의 공개 주식을 상장폐지 했다. 단독 주주로서 ARM의 향후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소프트뱅크의 시장 내 지위 및 영향력도 크게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만약 ARM이 설계의 라이선스 요율을 크게 조정했을 때 나타날 IT산업 전반으로의 파급효과를 생각해보면, 손정의 회장의 결정이 결코 개별 회사 인수에 그치는 이벤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소프트뱅크는 향후 글로벌 IT기업 투자로부터의 수익과 ARM을 통한 사업수익을 동시에 누릴 전망이다.

[그림 7] ARM홀딩스 적용 어플리케이션(반도체) 별 글로벌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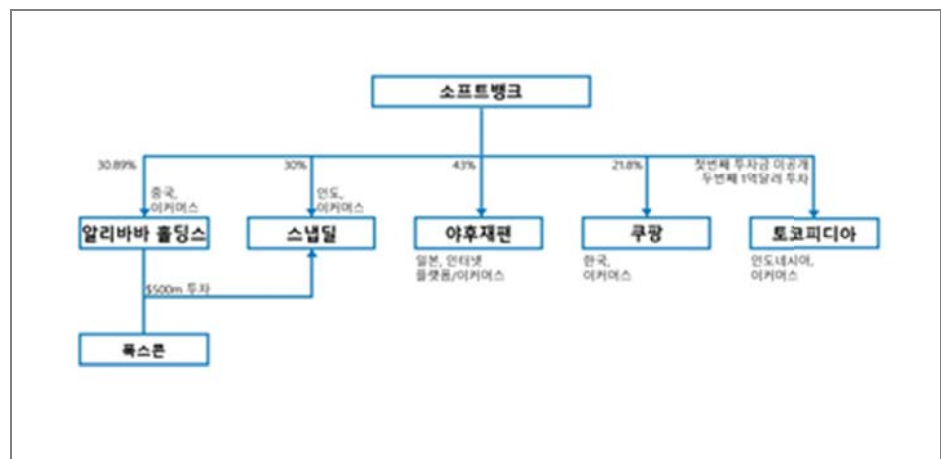


자료: ARM홀딩스, 한국투자증권

IoT, 전자상거래,
스마트 그리드 등
미래성장산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투자 지속

이와 같이 손정의 회장은 다양한 기업 투자 및 전략 제휴를 통해 다양한 미래성장산업의 체계 모니를 선점하려 노력 중이다. 1) ARM 인수 이후에도 소프트뱅크는 T-mobile 인수 등 미국 통신, 네트워크 사업 확대, 대만 팹스콘(Foxconn), 애플(Apple)과의 제휴 강화, 페퍼(Pepper)를 비롯한 서비스 로봇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유망 IT스타트업에 대한 선제투자도 예상된다. 이는 IoT산업의 모든 supply-chain 내 영향력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2) 전자상거래 영역에서 소프트뱅크는 일본의 야후재팬(Yahoo Japan), 중국의 알리바바(Alibaba), 한국의 쿠팡(Coupang), 인도의 스냅딜(Snapdeal) 등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아시아 시장 내 핵심 기업들을 포섭해 향후 산업의 방향성 설정과 주도권 행사가 예상된다. 3) 에너지 산업에서도 각국 정부와의 협력과 풍력, 태양광, 수력 발전소 개발 등으로 아시아(동북아 및 인도)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주도하려 할 것이다. 동 사업에서는 ARM의 저전력 기술을 활용한 시너지 창출도 예상된다.

[그림 8] 소프트뱅크그룹 아시아 주요 전자상거래 기업 지분투자 현황



자료: 소프트뱅크그룹, 한국투자증권

■ 글로벌 투자 아이디어: AI와 저전력 반도체 기업에 주목

AI기술과 저전력 반도체
분야에서 핵심기술력 보유
기업에 대한 중장기 투자
추천

최근 손정의 회장의 투자 강화 움직임에서 얻은 글로벌 투자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1) 트럼프 당선 이후 우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IT산업은 IoT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정책적인 이슈를 뛰어넘는 기술발전과 민간 투자확대가 예상되고, 주요국의 정책입안자들도 궁극적으로 IT산업의 성장 흐름에 역행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2) IoT산업의 본격적인 성장 국면 속에서 AI와 저전력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핵심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2016.9.23 발간 '4차 산업혁명 (3) IoT: Big cycle의 도래' 참고)하다. 다양한 supply-chain 내외 치열한 경쟁환경에 놓일 IoT 산업에서 확고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Q의 성장과 P의 방어(혹은 개선)가 가능한 기업에 투자할 것을 추천한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성공의 가시성이 높고 안정적인 투자전략이라는 판단이다.

Top picks: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VMware,
소프트뱅크그룹,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한국투자증권 글로벌팀의 IT top picks는 AI솔루션 보유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Microsoft), 알파벳(Alphabet), AI구현을 위한 데이터센터 내 핵심 supply-chain 엔비디아(Nvidia), 브이엠웨어(VMware), 저전력반도체 설계기술 선두기업 ARM홀딩스를 100% 소유한 소프트뱅크그룹, 반도체수요 증가로 강한 수주모멘텀이 예상되는 반도체 장비 점유율 1위 기업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Applied Materials) 등이다.

〈표 2〉 Top picks 밸류에이션 table

(단위: USD bn, USD, JPY bn, JPY, %, x)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증감률	EBITDA	PER	EV/EBITDA	PBR	ROE	DY
MICROSOFT	2014.6	86.8	27.8	22.1	3	1.9	33.0	15.8	12.8	3.8	26.2	2.7
MSFT US	2015.6	93.6	18.2	12.2	1	(44.0)	24.1	19.2	17.5	4.4	14.4	2.8
현재가: 62.3	2016.6	85.3	20.2	16.8	2	42.3	26.8	24.0	15.9	5.5	22.1	2.8
시가총액: 484.4	2017.6F	93.8	28.3	23.1	3	40.0	35.7	21.0	11.9	5.4	32.7	2.5
	2018.6F	98.9	30.9	24.8	3	9.7	38.4	19.1	11.1	3.9	27.9	2.7
ALPHABET	2013.12	55.5	15.4	12.9	19	18.3	19.3	28.4	25.6	4.3	16.2	0.0
GOOGL US	2014.12	66.0	16.5	14.1	21	7.7	21.5	26.8	22.8	3.5	14.8	0.0
현재가: 809.8	2015.12	75.0	19.4	16.3	23	10.5	24.4	33.6	19.6	4.4	14.6	0.0
시가총액: 551.1	2016.12F	72.8	29.5	23.9	35	49.8	35.6	23.4	13.2	4.0	15.6	0.0
	2017.12F	85.1	34.8	28.6	41	19.3	41.7	19.6	10.6	3.4	16.0	0.0
NVIDIA	2014.1	4.1	0.5	0.4	1	(17.6)	0.7	15.1	69.1	2.0	9.5	2.0
NVDA US	2015.1	4.7	0.8	0.6	1	52.0	1.0	14.1	52.0	2.6	14.2	1.6
현재가: 100.4	2016.1	5.0	0.7	0.6	1	(0.9)	0.9	21.3	53.6	3.5	13.8	1.3
시가총액: 54.1	2017.1F	6.8	2.1	1.7	3	151.6	2.2	35.3	22.9	10.1	33.1	0.5
	2018.1F	7.8	2.4	1.8	3	8.8	2.5	32.5	19.5	8.7	29.7	0.5
VMWARE	2013.12	5.2	1.1	1.0	2	34.9	1.4	36.8	19.2	5.7	16.2	0.0
VMW US	2014.12	6.0	1.0	0.9	2	(12.7)	1.4	36.0	20.2	4.7	12.3	0.0
현재가: 80.8	2015.12	6.6	1.2	1.0	2	14.1	1.5	19.9	17.8	3.0	12.9	0.0
시가총액: 33.3	2016.12F	7.0	2.3	1.8	4	85.7	2.6	18.5	10.1	4.1	22.8	0.0
	2017.12F	7.4	2.4	2.0	5	7.6	2.8	17.2	9.1	3.3	21.7	0.0
SOFTBANK GROUP	2014.3	6,666.7	1,077.0	520.3	437	31.4	1,976.9	17.9	7.9	4.8	29.4	0.5
9984 JP	2015.3	8,504.1	918.7	668.4	562	28.7	2,041.3	12.4	8.2	2.9	28.0	0.6
현재가: 7,822	2016.3	9,153.5	999.5	474.2	402	(28.4)	2,400.8	13.0	7.4	2.4	17.4	0.8
시가총액: 8,609.4	2017.3F	8,909.3	1,115.8	885.7	826	105.3	2,525.2	9.4	7.5	2.9	33.6	0.6
	2018.3F	9,226.3	1,265.8	670.9	607	(26.5)	2,709.7	12.8	6.7	2.4	21.3	0.6
APPLIED MATERIALS	2014.10	9.1	1.5	1.1	1	319.0	1.9	21.3	17.8	3.3	14.3	1.9
AMAT US	2015.10	9.7	1.7	1.4	1	28.4	2.1	14.0	16.8	2.5	17.8	2.4
현재가: 32.5	2016.10	10.8	2.2	1.7	2	38.1	2.5	18.0	13.6	4.3	23.2	1.4
시가총액: 35.0	2017.10F	12.6	3.1	2.6	2	52.4	3.3	13.7	10.0	4.1	30.2	1.3
	2018.10F	12.9	3.2	2.7	3	6.6	3.5	12.8	9.0	3.3	26.3	1.3

주: 소프트뱅크그룹을 제외한 기업 12월 16일 종가 기준, 소프트뱅크그룹은 12월 19일 종가 기준

자료: 각 사, Bloomberg추정치,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중립적 통화정책 전망에 중화권 증시 약세

- ▶ 상해종합지수 0.2% 하락, 내년 중립적 통화정책 전망 확대와 채권시장의 약세 등이 약재
- ▶ 홍콩H지수는 1.0% 하락, 11월 주요 신규주택가격 상승세 둔화와 해외자금 유출 우려가 약재

상해종합지수 0.2% 하락,
인테리어, 교통설비, 소프트
웨어 등의 업종이 약세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는 0.2% 하락한 3,118p로 마감하며 하루 만에 약세 전환했다. 거래대금은 1,745억위안으로 직전일의 1,898억위안에 비해 8% 감소했다. 약보합세로 출발하여 좁은 구간에서 등락을 보였다. 지난 주 경제공작회의에서 금융 건전성을 강화하고 자산버블을 축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통화정책이 중립적일 것이라는 해석이 확대된 것이 약재로 작용했다. 장중 채권시장이 약세를 보인 것 역시 투자심리를 약화시켰다. 부동산 규제 강화 우려와 11월 신규주택가격 상승세 둔화로 부동산 주와 보험사들의 인수 기대감이 높았던 특정 종목군이 급락했다. 다만 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에 혼합소유제와 공급 측 개혁을 가속화 할 것으로 밝히면서 관련주의 매수세가 유입됐다. 업종별로는 인테리어, 교통설비, 소프트웨어, 증권 등이 하락한 반면 운수, 화학비료, 정유 등의 업종은 상승했다. 차스닥 시장은 신 성장산업의 약세 속에 0.9% 하락한 1,980p로 마감했다. 한편 외국인들의 4거래만에 순매도하며 매도세로 전환했다.

■ 홍콩 시장

홍콩H지수 1.0% 하락,
부동산, 소재, 소비재 등의
업종이 약세

홍콩H지수는 1.0% 하락한 9,377p로 마감했다. 약세로 출발한 증시는 장중 하락폭이 확대됐다. 11월 주요도시의 신규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것과 해외자금 유출 우려가 부각된 것이 약재로 작용했다. 다만 국제 유가가 강세를 보인 것과 혼합소유제 가속화 기대감이 부각된 것은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부동산, 소재, 소비재의 낙폭이 컸다. 한편 A/H 프리미엄 지수는 본토증시대비 홍콩증시의 상대적인 약세 속에 123.3p를 기록하며 직전일보다 소폭 상승했다.

◆ 중국 주요 금융지표 추이

(단위: p, %)

구 분	12/19 (월)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상해종합	3,118.08	-0.16	-1.11	-2.34	-11.90
심천종합	1,984.10	-0.38	0.75	-6.02	-14.07
차스닥	1,980.41	-0.89	-0.20	-8.23	-27.03
홍콩H	9,377.43	-0.98	-3.32	0.30	-2.94
Shibor 7일물 금리(% , %p)	2.53	0.24	1.04	3.31	7.22
Shibor 1개월 금리(% , %p)	3.17	0.48	2.01	14.26	5.58
중국국채 3년물(% , %p)	2.74	0.79	3.70	15.50	6.84
위안/달러 고시환율	6.9312	-0.28	0.41	0.75	6.74
역내 위안/달러	6.9465	0.22	-0.57	-0.77	-6.52
역외 위안/달러	6.9444	0.33	-0.25	-0.57	-5.41

주: 19일 오후 6시 10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글로벌 증시의 전반적인 하락 속 국내증시는 연기금 개입으로 혼조세

- 미국증시는 미국과 중국간 지정학적 우려 및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트럼프 갤리에 대한 경계감에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소폭 내림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 장중 순매수 전환과 연기금 개입 그리고 개인 저가매수세 유입으로 오름세로 돌아서기도 하였으나 기관 매도세로 재차 하락반전하며 약보합세로 마감. 코스닥시장은 개인의 매수세와 연기금의 개입으로 재차 상승반전하며 강보합세로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전환, 주주가치 제고 방안과 올해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고, 강남 면세점 특허 획득 수혜 기대감에 신세계가 상승세를 보임. 내년 하반기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배터리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에 LG화학이 강세를 나타냈고, 내년 OLED 탑재 모델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본격 성장 기대감에 인터플렉스가 견조한 오름세를 나타내며 신고가를 경신했. AI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닭고기 대신 돼지고기 및 수산물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에 한일사료, 팜스토리, 사조오양 등 돈육/수산물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고, AI 인체감염증으로 전 세계에서 78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소식에 진원생명과학이 급등세를 나타냄. 삼양식품이 농심의 라면 가격 인상 소식에 연쇄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것이란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였고, 벤처캐피탈 업체인 DSC인베스트먼트가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 두 배의 시초가 형성 후 강세로 마감. 한편, 신규면세점 사업자 추가로 인한 경쟁심화 우려에 호텔신라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동반 약세를 보였고, 조종사 파업 소식에 따른 단기 손실 우려로 대한항공이 약세를 보임

종목/테마	내 용
돈육/수산물관련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반사이익 기대감에 관련주들 동반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닭고기 대신 돼지고기(이에 따른 사료 수요 증가) 및 수산물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에 돈육/수산물관련주들이 동반 강세 - 한일사료(005860, 상한가), 우리손에프앤지(073560, +7.53%), 우성사료(006980, +7.11%), 팜스토리(027710, +4.95%) / 사조오양(006090, +4.09%), 신라에스지(025870, +3.60%), 사조대림(003960, +3.59%) 등
인터플렉스(051370) ▶20,900 (+5.82%)	내년 OLED 탑재 모델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본격 성장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년 OLED 탑재 모델의 폭발적 증가로 디스플레이 모듈이 빅사이클에 진입함에 따라 본격 성장 기대감에 견조한 오름세를 나타내며 신고가 경신 - 내년 아이폰의 35%가, 2018년엔 아이폰 93%가 OLED를 채택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동사는 아이폰 초기물량의 40%를 담당할 것으로 기대
삼양식품(003230) ▶44,550 (+7.48%)	농심의 라면 가격 인상 소식에 동사 또한 연쇄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것이란 기대감에 급등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면업계 1위인 농심이 라면 가격을 평균 5.5% 인상하면서 동사 또한 연쇄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것이란 기대감에 급등세 - 3분기 기준 동사의 라면 매출 비중은 86.7%이며, 프리미엄 라면 매출 비중이 낮기 때문에 가격 인상 적용대상도 넓을 것으로 기대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2주 신고가 및 상한가

종목	내 용
삼성전자(005930) ▶1,795,000 (+0.11%)	- 지주회사 전환, 주주가치 제고 방안과 올해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단기 유망종목: 백산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백산 (035150)	9,910 (+10.7)	8,950 (1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3Q 영업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3.9%p 상승한 16.3% 기록. 신발부분의 가동률 상승과 스웨이드 및 차량재 확대에 따른 Product mix 개선이 원인. 글로벌 운동화 시장의 구조적 성장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긍정적 베트남 공장의 스웨이드 생산으로 이익 모멘텀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차량 내장재의 경우 고객사 신규모델에 추가 채택되면서 성장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음
싸이맥스 (160980)	17,450 (+9.4)	15,950 (1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장비 업체인 원익IPS, Semes, Applied Materials, 테스, ASMGK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웨이퍼 이송장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삼성전자의 평택 단지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성장성 부각될 전망. 삼성전기의 패널레벨패키지(PLP) 양산 투자가 내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큰폭의 매출 성장 가능
베셀 (141000)	6,210 (-1.7)	6,320 (1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디스플레이 패널업체들의 정부 보조금에 기반한 LCD 생산라인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예정된 투자 스케줄에 따라 In-Line 시스템 수주 모멘텀이 지속될 전망. 내년 예상 수주를 감안, 저평가 매력 존재 OLED 공정에 In-Line 시스템 시험 생산 장비 납품 경험과 Tianma 향 OLED 장비 수주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중국 패널 업체들의 OLED 투자에 따른 수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
에스에너지 (095910)	7,460 (-27.2)	10,250 (1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양광 모듈사업과 시스템 프로젝트 사업인 EPC(설계/조달/시공)사업을 영위. 태양광 원자재 가격 하락과 발전소 설치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 자회사 에스파워(지분 100%)에서 태양광 발전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전문으로 하는 에스인베스트먼트(신설회사)를 물적 분할함에 따라 EPC 사업의 양적 성장 본격화
유니트론텍 (142210)	8,270 (-4.7)	8,679 (09/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전장용 메모리 반도체 부문 1위인 Micron사의 국내 반도체 유통을 독점적으로 담당해 안정적인 매출 성장 기대. 작년부터 발생한 대만 AUO사의 디스플레이 모듈 유통 매출의 빠른 증가세에 주목 ‘시리얼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조인트벤처 ‘유니트론텍차이나’ 설립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중국 내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사업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
진성티씨 (036890)	8,130 (+34.8)	6,030 (08/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대선 후보들의 인프라투자 확대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 인프라투자 증가 기대감으로 Caterpillar, Hitachi 등 글로벌 건설기계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 이들 업체에 굴삭기 하부 주행체 부품을 공급중인 동사의 수혜 가능성 상존. 비용 절감을 위해 완성차 업체들의 부품 아웃소싱 비중이 높아지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유니트론텍은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해 수정주가를 적용하였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모두투어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6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모두투어 (080160)	29,650 (+9.2)	27,150 (11/15)	239	21	18	1,542	1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익에 기여하지 못했던 연결자회사들의 실적이 자유투어를 필두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 - 수요 상승과 점유율 확대에 외형 증가, 인건비와 광고선전비 등 효율적인 비용 집행으로 수익성 개선 예상 - 모두스테이는 내년 1~3개의 운영호텔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돼 순조로운 사업 확장 및 시너지 효과 전망 				
이마트 (139480)	191,000 (+21.7)	157,000 (09/22)	14,600	501	296	10,619	1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마트가 90% 지분을 보유한 신세계프라퍼티의 제1호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하남이 최근 오픈. 2021년까지 총 6개의 복합쇼핑몰을 계획하고 있어 장기적인 성장성에 주목 - 스타필드하남은 스포테인먼트 시설과 유명 맛집 등 집객 효과가 높은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어 교외형 복합쇼핑몰의 성공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은 0.63배로 역사적 최저 수준 				
씨엠에스에듀 (225330)	25,950 (-3.5)	26,900 (08/26)	56.8	10.7	8.9	2,244	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커리큘럼과 교육방식을 기반으로 매출 상승세 지속 - 직영점 및 가맹점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해외 진출 본격화 - 16년 예상 PER은 11배 수준으로 주요 사교육업체 평균 예상 PER 17배 수준 대비 저평가 				
비아트론 (190510)	25,400 (-5.9)	27,000 (08/26)	91.6	24.5	17.7	1,731	1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E를 시작으로 Tianma와 Visionox 등 중국 패널업체들의 flexible OLED 설비투자 본격화에 따른 수혜 전망 - LG디스플레이의 6세대 flexible OLED라인 설비투자 관련 장비 발주 예상 - 주요 고객사의 중소형 OLED 투자 확대에 따른 수주 모멘텀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 				
대상 (001680)	27,650 (-5.8)	29,350 (06/22)	2,946	131	82	2,288	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신부문이 빠른 공정 효율화 작업으로 수익성 개선되고 있고 하반기 베스트코의 실적 회복 기대 -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식품부문의 영업이익률 향상 전망. 내년 초 공장이 완공되는 인도네시아의 전문/전문당 사업추가로 갈수록 실적 개선 폭 커질 전망 - 올해 예상 PER 12.3배로 업종 평균 21.0배 보다 크게 낮아 밸류에이션 매력 상존 				
SK머티리얼즈 (036490)	171,000 (+37.9)	124,000 (04/25)	462	169	120	11,433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그룹에 편입되면서 전반적인 대외신인도 향상 및 시너지 효과 기대. 반도체 사업은 SK그룹의 핵심 육성 사업으로 수직계열화 측면에서 SK머티리얼즈의 전략적 가치 부각 - 반도체 업체들의 지속적인 미세공정 전환과 3D NAND 투자 확대 수혜. 국내 및 중국 디스플레이업체들의 공격적인 플렉서블OLED라인 및 대형 OLED투자로 중장기적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 기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이마트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면세점: 국내 면세점 산업, 지형도가 바뀐다

■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발표

17일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서울 4개(대기업 3개, 중소·중견기업 1개), 부산 1개, 강원 1개 등 3개 지역의 6개의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를 선정 발표했다. 서울 지역은 대기업군은 현대백화점면세점(현대백화점그룹),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신세계DF가 선정됐고, 중소·중견기업은 탑시티면세점이 신규 특허를 획득했다. 중소·중견기업만 특허 신청이 가능했던 부산과 강원 지역은 각각 부산면세점, 알펜시아가 특허를 취득했다.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은 12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 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된 이후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 강남 지역 대거 선정으로 서울 시내면세점 지형도 대변화

시장의 이목을 끌었던 것은 서울 지역 대기업 사업자 선정이었다. 작년 11월 면세점 재승인 심사에서 특허 연장에 실패했던 롯데 월드타워점은 특허 회복에 성공했고, 작년 말 사업자로 선정돼 서울 시내면세점을 확보한 신세계면세점(신세계DF)은 명동점에 이어 서울 시내에 2번째 영업장을 갖게 됐다. 유통 빅3 중 유일하게 면세점을 보유하지 못했던 현대백화점그룹은 이번 특허권 확보로 면세점 사업에 첫 발을 내딛게 됐다. SK네트웍스는 위커힐 면세점의 특허권 재획득에 실패했다. 이번에 선정된 서울 대기업 사업자들의 영업장 입지는 송파구 잠실(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서초구 반포(신세계면세점 센트럴시티점), 삼성동 코엑스(현대백화점면세점)로 강남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그동안 강북 지역에 쏠려 있던 서울 시내면세점이 강남 지역으로 분산 및 확대돼 강남권이 새로운 면세점 상권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 한 번의 춘추전국시대 예고, 면세점 3강 체제로 재편

서울 시내면세점은 14년 6개(4개 사업자)에서 17년 13개(10개 사업자)로 늘어나게 됐다. 15년 7월 신규로 3개 사업자(HDC신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SM면세점)가 선정됐고, 11월 특허권이 만료된 2개의 사업장(롯데 월드타워점, SK네트웍스 위커힐점)이 갱신에 실패해 사업자가 변경(신세계면세점, 두타면세점)됐다. 이번 4개의 신규 사업자 선정에서 신세계면세점이 특허 획득에 성공해, 그동안 롯데, 신라 양강 체제에서 강북(명동)과 강남(센트럴)에 영업장을 모두 갖게 된 신세계가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 3강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2016년 영업을 개시한 사업자들도 여전히 적자를 지속하며 자리 매김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 사업자가 추가될 예정으로 면세점의 춘추전국시대가 지속될 전망이다.

■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 환경

최근 국내 면세점 업계는 국내외 정치적 이슈로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해 안팎으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1) 한중 정부간 정치적 이슈로 중국인 관광객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면세점 매출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기여도가 60% 이상에 달해 경영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기획재정부는 9일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에 고하고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을 현행 대비 최대 20배 인상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자들은 영업 적자를 면치 못하고 사업자 증가에 따른 경쟁 과열로 수익성이 하락한 상황에서 면세점 수수료 인상은 수익성 제고에 부담일 수 있다. 3) 지난 3월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수료율 인상과 함께 현행 5년인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갱신을 허용하는 방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4) 최근 2년간 면세점 사업자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대외 영업 환경은 어려워지고 있어 마케팅 등 단기 경쟁 심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 결론: 면세점 업종은 진정한 경쟁력을 확보한 사업자가 살아남을 것

면세점업의 핵심 경쟁력은 브랜드 소싱 능력, 재고 운영 능력 등에서 비롯된다. 즉 유통 경험과 운영 노하우가 수반되어야 한다. 부가적으로 브랜드 인지도, 입지 등이 관건이다. 면세점업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변하고 있다. 관광 패턴이 단체에서 개별여행으로 변화하고 있고,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구매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중국인 입국자수는 단체 관광객을 중심으로 09~14년 연평균 성장률이 35.5% 달했으나, 최근 개별여행으로 축이 옮겨 가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자 증가, 불확실한 대외 환경 등으로 단기 경쟁 심화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면세점 춘추전국시대를 거쳐 결국은 진정한 핵심 경쟁력을 갖춘 상위 사업자 위주로 산업이 재편될 것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6년 12월 1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헬스케어: 정밀의료 육성의 key는 유전체 분석

■ 관심이 높아지는 유전체 분석 산업

암 정복은 인류의 오랜 숙원이다. 방사선 치료부터 최근 면역 세포를 이용한 치료법까지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 암 정복은 요원한 상황이다. 조기진단과 맞춤치료가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유전체 분석이다. 2015년 2월 미국 정밀의료 육성 정책인 PMI(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발표 이후 각국 정부에서 앞다퉀 대규모 코호트 구축에 나서고 있다. 한 사람의 유전체를 분석하는 비용이 1,000달러 수준으로 낮아져 10만명, 100만명의 유전체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진 결과다. 정밀의료 산업의 핵심은 인종, 국가별로 유전적 특성이 다르므로 자국민에게 적용할 수 있는 유전체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 NGS를 통한 암검진에 보험급여 적용될 전망

1세대 CES 방식에 비해 2세대 NGS(차세대염기서열분석) 방식은 게놈당 분석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유전체 분석을 통해 암 검진을 할 수 있게 된 주요한 계기다. NGS 검사로 암 세포 조직을 분석해 암 유발 유전자 변이를 찾고 적합한 항암제를 처방할 수 있다. NGS 암 진단의 수가는 50개 이하 유전자는 70만원, 51개 이상 유전자는 100만원 적용을 검토 중이다. 보험 적용시 환자 부담이 50% 이하로 줄어 비용과 치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18.3만명(갑상선암 제외)의 신규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NGS 암 진단 시장 규모는 수검률 5% 가정시 92억원으로 추정된다. NGS 암검진 보험급여 적용 시기는 당초 예상했던 16년 말 보다는 조금 늦어진 17년 상반기로 예상된다.

■ DTC(Direct to Consumer) 시장의 개화는 아직...

6월 30일부터 유전체 분석 기관이 병원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서비스 가능한 유전자 수가 42개로 제한돼 15만원 수준의 비용을 지불할 만큼 소비자들의 효용이 크지 않아 시장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DTC 검사는 미국의 23andMe처럼 다수의 데이터를 확보한 이후 임상, 신약개발에 활용하는 방식 혹은 화장품, 건강관리식품 등과 연계하는 형태의 사업모델의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 규모의 경제와 고객기반 갖춘 마크로젠 선호

정밀의료 산업 육성은 전세계적인 흐름이다. NCI-MATCH에 등록된 표적항암제의 개수는 2015년 초 6개에서 2016년 5월 24개로 늘었다. 유전체 분석 산업의 핵심은 대규모 유전체 데이터 확보와 해석 능력이다. 마크로젠은 다수의 시퀀싱 장비와 현재까지 가장 정밀한 한국인 표준 유전체 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전세계 대부분의 연구기관을 고객으로 이미 확보하고 있어 글로벌 정밀의료 산업 육성 정책의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랩지노믹스는 산부인과 병원네트워크의 강점을 활용해 산전검사인 맘가드와 신생아 검사인 양광가드를 통해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에 한국과 유사한 진단센터를 설립해 이머징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6년 12월 1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LG유플러스(032640)

매수(유지)

목표가: 15,500원(유지)

종가(12/16): 11,900원

4Q16 Preview: 수익 호전, 배당 증가

■ 4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

4분기 영업실적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조 8,923억원, 1,693억원으로 시장 예상치와 비슷할 것이다. 서비스 매출액(단말기 판매 제외)은 전년동기대비 3.8% 늘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IPTV는 가입자수 및 가입자당 매출액(ARPU) 증가로 매출액이 18.4% 늘어 매출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전용회선, 초고속인터넷도 높은 성장세를 지속했으나 유선전화는 매출 감소세가 이어졌다. 영업이익은 마케팅비용과 인건비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49.7% 증가할 것이다. 15년 4분기의 연말 성과금(450억원)을 분할 반영한 조정 영업이익 대비로도 15.2% 증가할 전망이다.

■ IPTV, 결제, 사물인터넷이 매출 성장 주도

LG유플러스는 이통 3사 중 성장성이 가장 높다. 16년 서비스 매출액(단말기 판매 제외)이 전년대비 3.7% 늘어나는데 이어 17년에도 2.9% 증가할 것이다. 17년 이동통신 매출은 가입자가 4.2% 늘어 1.6% 증가할 전망이다. 유선통신 매출액 증가율은 4.8%로 이동통신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IPTV, 전자결제, 사물인터넷(IoT)이 3대 성장동력이다. IPTV는 매출이 15.3% 늘어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 결제(PG) 매출액도 20% 증가할 전망이다. IoT는 NB-IoT 망 구축으로 가입자 증가가 가속화돼 매출이 5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주파수 상각으로 17년 영업이익 증가율은 낮아지나 EBITDA 증가율은 높아질 것

16년 영업이익은 매출조정과 IPTV 흑자 전환으로 전년대비 15.7% 증가하고 순이익은 금융손익 개선 등으로 32.5% 늘어날 전망이다. 17년 유형·무형자산 상각비는 전년대비 1,176억원 증가할 것이다. 16년 4월에 신규 주파수(경매 낙찰가 4,513억원, 이용기간 5년)를 확보함에 따라 16년말부터 주파수 이용권 및 설비투자 상각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 영업이익 증가율은 16년 15.7%에서 17년에 2.9%로 낮아질 것이나 EBITDA 증가율은 5.4%에서 5.9%로 높아질 전망이다.

■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15,500원 유지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15,5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12MF EPS에 목표 PER 14.1배(과거 3년 평균을 18.2% 할인)를 적용해 산출했다. 주가는 높은 성장성을 반영할 것이다. 16년 수익 호전으로 주당 배당금은 15년 250원에서 16년 300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배당수익률은 2.5%에 달한다. 장기적으로 배당성향을 현행 30%에서 상향할 계획이어서 배당 메리트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4A	11,000	576	228	523	(18.3)	2,082	22.0	4.6	1.2	5.6	1.3
2015A	10,795	632	351	805	53.9	2,241	12.9	3.9	1.0	8.1	2.4
2016F	11,221	731	466	1,067	32.5	2,362	11.2	3.9	1.1	10.1	2.5
2017F	11,535	753	481	1,101	3.2	2,501	10.8	3.6	1.0	9.7	2.6
2018F	11,769	823	538	1,231	11.8	2,609	9.7	3.4	0.9	10.2	2.7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6년 12월 1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농심(004370)

매수(유지)

목표가: 550,000원(유지)

종가(12/16): 341,500원

라면가격 인상, 기업가치 상승 전환 계기될 것

■ 라면가격 평균 5.5% 인상

농심이 오는 20일부터 내수 라면가격을 평균 5.5% 인상하기로 했다.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신라면이 6.4%, 너구리가 5.9%, 짜파게티가 5.6% 인상되었다. 농심의 출고가 기준 가격 인상폭은 5~6% 정도로 추정된다. 2015년 라면 내수 매출액은 1조 2,664억원에 달한다. 이중 1천억원 규모의 프리미엄라면(소비자가격 1,500원짜리 봉지면 기준)의 가격은 인상되지 않았으므로 1조 1,500억원 정도의 제품의 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가정하면, 연간 매출액은 증가 규모는 700억원 정도이다. 2016년 영업이익이 1,076억원으로 추정되므로 추가적인 비용 증가가 없다면, 영업이익 개선 효과는 50%를 넘는다. 우리는 제품가격 인상 시,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지급 수수료, 영업사원의 인센티브 등이 동반 증가할 수 있다고 가정해 민감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라면 내수 ASP가 1% 상승할 때 이론적인 EPS 개선 효과는 7%에 달한다. 다만 과거 사례와 같이 경쟁사가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가격을 올리고, 이 구간에서 점유율 방어를 위해 동사가 마케팅비를 증가시킨다고 가정할 경우 민감도는 ASP 1% 상승에 EPS 5% 증가이다. 결국 라면 ASP가 6% 올랐다고 가정하면 EPS 개선 효과는 30% 이상으로 분석된다.

■ 2017년은 재도약의 한해 될 것

우리는 기존에 내년 라면 내수 ASP가 3.5%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해왔기 때문에 이번 가격 조정으로 인한 영업이익 상향 폭은 4% 정도로 크지 않다. 사실 ASP가 6% 정도 오르면 영업이익이 10% 이상 상향되어야 하나 보수적인 관점에서 동사가 마케팅비 지출을 늘린다고 가정하였다. 하지만 2017년 1,113억원에 불과한 영업이익 시장 컨센서스는 상향 여지가 커 보인다. 결론적으로 2017년 영업이익은 1,527억원으로 2016년대비 42.0% 증가할 전망이다. 기존 제품의 가격 인상 효과, 프리미엄 제품의 비중 상승, 그리고 점유율이 전년 55.7%에서 57.9%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이미 가장 강력한 경쟁품과의 가격괴리가 50% 정도 벌어져 있어 가격 인상으로 인한 추가 수요 이탈이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마케팅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라면시장에서 프리미엄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가장 강력한 동사가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본다. 동사는 기존 제품의 가격 인상에 성공해 내년에는 더 공격적으로 프리미엄 라면을 출시할 것으로 본다. 프리미엄 신제품 수는 올해 3개에서 내년 5개 이상으로 전망한다. 여기에 중국과 미국의 고성장도 지속될 것이다. 2017년 예상 PER은 13.9배로 음식료 평균 16.1배와 글로벌 피어 평균 21.7배보다 낮다. 적극적인 매수를 권고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4A	2,042	74	65	11,241	(26.5)	155	22.5	6.9	1.0	4.3	1.6
2015A	2,182	118	117	20,291	80.5	198	21.7	11.0	1.6	7.4	0.9
2016F	2,201	108	186	32,195	58.7	194	10.5	7.1	1.1	10.8	1.2
2017F	2,464	153	142	24,521	(23.8)	239	13.8	5.5	1.0	7.6	1.2
2018F	2,632	183	166	28,757	17.3	271	11.8	4.5	1.0	8.3	1.2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6년 12월 1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씨엠에스에듀(225330)

매수(신규)

목표가: 36,000원

종가(12/16): 26,000원

안팎으로 성장하는 수학의 강자

■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36,000원 제시

초/중/고 수학 학원을 운영하는 씨엠에스에듀에 대해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36,000원(2017년 EPS에 목표 PER 14배 적용)을 제시하며 분석을 개시한다. 투자포인트는 1) 수능 정책 변화와 이공계 입시 정원 확대로 수학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2) 직영점이 늘어 성장이 지속되며, 3) 2017년부터 해외 시장(태국, 베트남, 중국) 진출로 고수익의 로열티 매출이 늘어 마진이 개선된다는 점이다. 2018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연평균 각각 16.5%, 27.7%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2016년 배당수익률이 4.5%(기말 배당 수익률 2.3%)로 배당 매력도 크다.

■ 대세는 수학이다

수학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다. 1) 2018년부터 수능 영어 평가 방식이 절대평가로 전환돼 변별력이 낮아지고, 2) 주요 대학의 이공계 입시 정원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인당 영어 사교육비는 감소세이나 수학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씨엠에스에듀의 학원 수는 71개(직영점 26개, 가맹점 45개)로 경쟁 학원(100개 이상) 대비 적다. 직영점이 2018년까지 연평균 14.4% 늘어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 해외, 기대해도 좋다

2017년에는 해외 모넨텀이 커질 것이다. 2016년 중국, 태국, 베트남에서 시범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하기 시작, 2017년부터는 콘텐츠 공급 학교와 학생 수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 학원 사업자와의 JV 설립을 완료해 사교육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고, 베트남 및 태국에서는 공교육 시장에 콘텐츠를 공급할 계획이다. 고수익의 로열티 매출이 늘어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가능할 것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4A	40	8	6	1,824	NM	9	NM	NM	NM	46.1	-
2015A	48	9	7	2,118	16.1	11	NM	NM	NM	50.0	-
2016F	57	10	8	2,088	(1.4)	13	12.5	7.8	6.0	50.3	4.6
2017F	66	14	11	2,567	22.9	16	10.1	6.2	4.9	53.3	5.8
2018F	77	17	14	3,231	25.9	20	8.0	4.8	3.9	53.5	6.9

*상기 보고서는 2016년 12월 1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신세계(004170)

매수(유지)

목표가: 270,000원(유지)

종가(12/16): 178,500원

강남면세점 획득, 떠오르는 신세계

■ 또 하나의 강력한 면세점 탄생

관세청이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대기업)로 롯데, 현대백화점, 신세계 등 유통 그룹을 선정했다. 롯데그룹의 호텔롯데는 지난해 11월 특허권을 잃었던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을 재개장할 계획이며, 현대백화점은 삼성동 무역센터점에 새로이 면세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금번 신규사업자 선정에서 가장 주목할 기업은 신세계다. 신세계는 올해 시작된 명동점에 이어 내년에는 강남 센트럴시티에 두번째 면세점을 조성하게 된다. 센트럴시티는 롯데쇼핑의 소공동 본점에 이어 매출 기준 국내 2위의 대형백화점이다.

■ 규모를 갖춰가는 신세계면세점

센트럴시티로 인해 신세계그룹의 면세점은 총 4곳이 된다. 이마트의 신세계조선호텔이 운영하는 인천공항점과 센텀시티점, 신세계의 신세계DF가 운영하는 명동점과 센트럴시티점이다. 인천공항에 더해 부산, 서울 강북과 강남의 핵심상권에 모두 면세점을 확보한 셈이다. 인천공항점 등 기존의 3곳은 올해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되었으며, 금번 확보한 센트럴시티점은 내년 영업이 개시된다. 4곳 모두 빠른 외형성장이 예상되며, 규모를 갖추에 따라 협상력 또한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가 예상하는 2017년, 2018년 신세계그룹(신세계DF + 신세계조선호텔 면세점사업부)의 면세점 매출 규모는 각각 1.7조, 2.4조원이며, 2017년 중 신세계그룹의 면세점 사업은 신세계DF로 통합을 예상한다.

■ 투자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70,000원 유지

신세계의 강남 면세점 특허 획득은 기업가치를 높이는 이슈로 판단한다. 신규사업자의 경쟁과열과 초기 영업손실, 중국인 관광객 성장률 둔화 등의 우려는 규모가 확보됨에 따라 소멸될 것으로 보이며, 결국 면세점 가치는 입지와 브랜드 유치 등 협상력, 영업실적 등에 따라 기업 개별적으로 평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허 연장에 대한 불확실성도 갈수록 희석될 것으로 판단한다. 정치논리가 아닌, 면세점 운영 능력과 실적만으로 평가할 때 국내 주요 면세점 사업자의 영업권 상실 가능성은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치이슈로 인한 면세점사업자 선정 결과의 불확실성을 배제할 경우 금번 강남 면세점 획득은 주가에 긍정적 요인이다. 신세계에 대한 투자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70,000원을 유지한다. 현재 주가는 12MF PER 8.2배에 거래되고 있으며 우리의 목표주가는 12MF PER 12.5배에 해당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4A	2,492	273	157	15,922	(0.6)	442	11.4	11.5	0.7	6.2	0.6
2015A	2,564	262	402	40,879	156.7	438	5.6	11.8	0.7	14.3	0.5
2016F	3,082	263	296	30,092	(26.4)	455	5.9	10.7	0.5	9.3	0.7
2017F	4,164	293	177	18,011	(40.1)	501	9.9	10.6	0.5	5.2	0.7
2018F	4,772	296	177	17,956	(0.3)	516	9.9	10.6	0.5	4.9	0.7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6년 12월 1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현대중공업(009540)

매수(유지)

목표가: 187,000원(유지)

종가(12/16): 149,500원

수주는 부진했으나 4분기 실적은 호조

■ 극히 부진했던 2016년 vs 2017년 상선 수주 소폭 회복

최근 이란 컨테이너와 국내 특수선 수주로 본사수주는 조선 31억달러, 해양 2억달러를 포함 총 81억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1월, 조선/해양 수주 가이드를 117억달러(비조선 포함 195억달러)에서 36억달러(비조선 포함 95억달러)로 대폭 하향했다. 유력 안건이던 스페인 전력사인 Endesa 발주의 LNG선 4척과 러시아 Sovcomflot의 아프리카막스 탱커가 내년으로 밀렸기 때문에 목표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판단된다.

BWTS(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의무장착과 SOx 규제는 장기적으로 상선 발주를 촉진시키는 요인임에 분명하나 아직 체감은 더디다. BWTS의 경우 발효되는 2017년 9월 직전에 검수하면 5년간 검수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불황 속 선주들은 버티기로 대응하고 있다. SOx 규제가 실제 적용되는 2020년 운항을 대비한 2018년부터 상선발주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선주의 관망세는 질지만 12월 들어 신조문의는 늘고 있어 2017년 상선 시장은 소폭 반등이 예상된다. 최근 머스크가 독일 선사인 함부르크수드(7위)를 인수했음에도 신조문의를 하는 등 낮은 선가를 이용해 2위와의 점유율을 더욱 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 4분기 실적 기여의 주역은 오일뱅크

4분기 실적은 양호할 전망이다. 매출은 전년대비 14% 감소하겠으나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한 4,420억원으로 추정한다.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보였던 오일뱅크의 정제마진이 \$9/b였다면, 최근 \$14/b 이상으로 상승해 2분기 수준의 오일뱅크 실적을 예상한다. 11월 중순부터 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6:4 지분으로 합작신설한 현대케미칼의 혼합자일렌(Mixed Xylene) 상업생산이 시작돼, 연 매출 1천억원 증가가 가능하다. 4분기 해양 프로젝트에서 330억원의 change order를 추진하고 있어 확정 시 해양에서 이익 upside가 있다. 부정적 요인은 강재단가 인상이다. 통상 3월과 9월에 강재단가 협상을 하는데 오른 가격이 4분기부터 점차 반영되고 있다. 재고가 소진되는 2분기부터는 인상된 강재단가가 대부분 반영될 전망이다. 조선 사업 영업이익률은 최대 1%p 하락 가능성이 있다.

■ 단기 모멘텀은 부재하나 실적 정상화로 저평가 매력

몇몇 기대 안건의 계약이 내년 1월로 이연돼 단기 모멘텀이 부재하다. 그러나 가장 빠른 구조조정과 유동성 확보, 비조선 사업부의 독자생존에 따른 실적 정상화는 장기 투자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다. 향후 조선/해양 사업의 수주규모는 50억달러에 수렴할 전망이다. 지난 11월, 분할을 통한 6개사 체제 전환을 결정하며 그간 소외됐던 로봇/건설기계/엔진기계 등 비조선 사업부의 효율적 성장이 예상된다. 역사적으로 복합기업의 할인을 적용 받아 왔으나 사업재편에 따른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예상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4A	52,582	(3,249)	(1,769)	(32,049)	NM	(2,231)	NM	NM	0.5	(10.9)	-
2015A	46,232	(1,540)	(1,350)	(24,349)	NM	(472)	NM	NM	0.5	(9.3)	-
2016F	38,593	1,646	980	14,880	NM	2,687	10.0	8.9	0.7	6.6	-
2017F	36,261	1,596	1,037	15,748	5.8	2,633	9.5	8.2	0.6	6.3	-
2018F	36,830	1,832	1,197	18,174	15.4	2,874	8.2	7.4	0.6	6.8	-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6년 12월 1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2/13(화)	12/14(수)	12/15(목)	12/16(금)	12/19(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35.98	2,036.87	2,036.65	2,042.24	2,038.39
	등락폭		8.74	0.89	-0.22	5.59	-3.85
	등락종목	상승(상한)	562(1)	379(0)	595(0)	384(0)	356(1)
		하락(하한)	268(0)	430(0)	214(0)	435(0)	440(0)
	ADR		92.05	86.90	91.58	95.09	99.79
	이격도	10 일	101.79	101.56	101.28	101.20	100.64
		20 일	102.37	102.27	102.11	102.22	101.84
	투자심리		70	70	60	70	70
	거래량	(백만 주)	383	384	300	290	248
	거래대금	(십억 원)	4,221	3,393	3,291	3,944	2,941
코스닥	코스닥지수		611.09	612.47	620.61	622.08	622.77
	등락폭		8.01	1.38	8.14	1.47	0.69
	등락종목	상승(상한)	768(2)	535(3)	841(4)	508(3)	524(1)
		하락(하한)	313(0)	555(0)	256(0)	562(0)	577(0)
	ADR		92.37	92.66	93.96	94.22	94.35
	이격도	10 일	103.49	103.44	104.34	103.97	103.26
		20 일	102.01	102.37	103.80	104.03	104.03
	투자심리		60	60	70	80	90
	거래량	(백만주)	638	698	597	771	641
	거래대금	(십억원)	3,369	3,241	2,997	3,672	3,108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457.0	883.5	573.1	114.2	81.1	101.3	65.5	7.0	204.1	28.9
	매도	1,378.3	881.0	650.2	137.1	84.9	145.5	94.0	16.1	172.6	32.9
	순매수	78.7	2.5	-77.2	-22.9	-3.9	-44.2	-28.5	-9.2	31.4	-4.0
	12 월 누계	-1,338.4	706.2	554.3	437.2	-131.1	-534.7	21.0	-41.1	802.9	78.0
	16 년 누계	-8,499.1	10,530.6	-5,000.3	-688.9	928.0	-6,192.9	-1,097.0	-997.3	3,048.2	2,968.8
코스닥	매수	2,867.0	146.8	88.8	23.3	6.1	14.1	7.2	1.5	36.7	17.5
	매도	2,854.1	148.1	99.8	31.6	16.3	21.9	14.5	2.4	13.0	18.2
	순매수	13.0	-1.3	-11.0	-8.3	-10.2	-7.9	-7.3	-0.9	23.6	-0.7
	12 월 누계	-130.6	125.6	51.4	37.1	4.4	-12.1	16.4	0.7	4.8	-46.4
	16 년 누계	5,760.4	790.0	-4,362.0	-216.3	-321.9	-1,649.6	-721.6	-151.8	-1,301.1	-2,188.3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5,166	전기전자	-18,464
음식료	593	미분류	-6,602
기계	318	철강금속	-6,144
엔씨소프트	5,146	삼성전자	-12,928
S-Oil	4,484	POSCO	-4,097
현대모비스	1,947	현대글로비스	-3,401
KT&G	1,811	LG디스플레이	-3,216
현대산업	1,607	SK이노베이션	-2,935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16,782	서비스업	-6,799
의약품	11,463	전기전자	-5,443
미분류	6,474	철강금속	-5,087
LG화학	13,504	SK하이닉스	-9,952
삼성바이오로직스	10,936	POSCO	-8,857
KT&G	6,879	SK이노베이션	-8,018
S-Oil	4,202	아모레퍼시픽	-2,622
삼성전자	3,692	현대글로비스	-2,344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미분류	1,048	화학	-5,427
유통업	491	철강금속	-3,398
전기전자	365	서비스업	-774
KBSTAR 200선물인버스2X	1,713	LG화학	-4,895
SK네트웍스	928	POSCO	-3,267
KODEX 인버스	577	KODEX 레버리지	-1,224
TIGER 200	524	KOSEF 미국달러선물 레버리지(합성)	-901
삼성전기	477	호텔신라	-492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3,393	철강금속	-2,526
전기전자	3,123	서비스업	-2,464
증권	2,006	음식료	-1,923
삼성전자	5,343	KODEX 200	-5,215
미래에셋 미국 항공우주 ETN(H)	5,000	맥쿼리인프라	-4,265
KODEX 코스닥 150	5,000	POSCO	-3,498
KB금융	3,042	LG디스플레이	-3,262
미래에셋증권	1,621	강원랜드	-1,890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의약품	13,063	전기전자	-26,177
미분류	11,156	철강금속	-23,621
운수장비	1,737	서비스업	-11,615
LG화학	14,272	POSCO	-22,920
삼성바이오로직스	11,731	LG디스플레이	-9,842
S-Oil	9,137	SK이노베이션	-9,437
KT&G	7,920	삼성전자	-8,288
TIGER 200	6,877	KODEX 인버스	-8,001
KODEX 레버리지	6,369	아모레퍼시픽	-6,922
엔씨소프트	6,034	후성	-6,701
삼성물산	4,476	현대글로비스	-6,160
LG생명과학	4,006	한국콜마	-5,667
SK네트웍스	3,636	효성	-5,143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27,539	서비스업	-11,066
기타금융업	9,789	운수장비	-9,536
의약품	6,535	유통업	-8,266
LG화학	19,488	SK하이닉스	-24,417
삼성SDI	17,945	호텔신라	-14,589
삼성바이오로직스	7,235	SK이노베이션	-14,409
아모레퍼시픽	6,809	SK텔레콤	-7,956
신한지주	5,829	S-Oil	-6,994
효성	5,415	TIGER 200	-6,612
아모레G	4,744	현대산업	-5,926
SK네트웍스	4,564	엔씨소프트	-5,528
현대차	4,298	두산중공업	-4,447
삼성전자	3,921	POSCO	-3,825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방송서비스	752	반도체	-3,108
의료,정밀기기	704	금융	-2,475
디지털컨텐츠	529	농업	-1,075
셀트리온	1,485	DSC인베스트먼트	-2,475
이오테크닉스	792	SK머티리얼즈	-2,024
CJ E&M	661	우리손에프앤지	-1,145
더블유게임즈	474	에스티팜	-1,087
넥스트아이	448	골프존유원홀딩스	-888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제약	18,631	의료,정밀기기	-443
반도체	2,656	종이,목재	-169
방송서비스	2,327	교육	-164
셀트리온	17,475	솔브레인	-640
CJ E&M	1,730	루트로닉	-482
이엔에프테크놀로지	1,069	팜스토리	-348
SK머티리얼즈	786	나무가	-259
매일유업	646	동국제약	-247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478	반도체	-409
기계,장비	153	제약	-384
화학	54	금융	-333
더블유게임즈	498	셀트리온제약	-472
코오롱생명과학	77	DSC인베스트먼트	-333
테크윙	74	카카오	-235
인터플렉스	68	테라세미콘	-165
진성티씨	57	우리손에프앤지	-115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방송서비스	258	반도체	-4,992
일반전기전자	159	오락,문화	-1,318
전문기술	137	제약	-1,176
GS홈쇼핑	450	SK머티리얼즈	-4,437
뷰웍스	434	파라다이스	-884
이녹스	232	비에이치	-677
로체시스템즈	160	인선이엔티	-567
제이콘텐트리	152	NICE평가정보	-525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제약	18,720	반도체	-10,093
방송서비스	4,282	금융	-9,140
전문기술	967	오락,문화	-2,799
셀트리온	21,517	DSC인베스트먼트	-9,127
CJ E&M	3,087	SK머티리얼즈	-5,628
삼천당제약	1,633	이지바이오	-2,824
제이콘텐트리	1,243	우리손에프앤지	-2,380
더블유게임즈	806	파라다이스	-1,430
뷰웍스	748	오션브릿지	-1,016
이오테크닉스	740	연우	-997
이엔에프테크놀로지	700	비에이치	-974
뉴파워프라즈마	678	오스템임플란트	-971
CJ오쇼핑	658	AP시스템	-955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반도체	11,649	제약	-16,513
소프트웨어	3,321	방송서비스	-3,404
통신장비	1,601	전문기술	-1,434
SK머티리얼즈	6,461	셀트리온	-17,054
AP시스템	2,715	제이콘텐트리	-2,095
인터플렉스	1,405	CJ E&M	-1,852
아프리카TV	1,267	파트론	-1,253
테라세미콘	1,119	CJ오쇼핑	-1,064
에프티이앤이	1,098	동진세미켐	-1,040
홈캐스트	1,081	컴투스	-1,029
씨젠	1,050	원익홀딩스	-955
고영	934	카카오	-814
인선이엔티	872	바이로메드	-771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유성기업	83 일	일성신약	27 일
대구백화점	50 일	메리츠증권	21 일
KOSEF 200 선물	28 일	동국제강	20 일
LS	28 일	광주은행	17 일
ARIRANG 방어주	22 일	JB금융지주	17 일
QV 운송 TOP5 ETN	20 일	지투알	17 일
동양고속	19 일	아주캐피탈	17 일
디씨엠	18 일	F&F	17 일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엘엠에스	18 일	포스코엔텍	28 일
슈피겐코리아	17 일	케이사인	18 일
더블유게임즈	17 일	대한과학	17 일
위메이드	15 일	동일철강	15 일
미스터블루	13 일	씨젠	14 일
수산아이앤티	13 일	이크레더블	14 일
이라이콤	12 일	큐렉소	14 일
CJ E&M	11 일	서한	1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TIGER 200	62,373	삼성전자	113,278
LG화학	56,865	신한지주	48,120
KODEX 레버리지	54,077	KB금융	45,350
엔씨소프트	49,212	LG디스플레이	42,498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24,668	하나금융지주	36,805
삼성SDI	18,009	SK텔레콤	33,350
현대산업	17,890	LG생활건강	28,106
현대제철	17,796	삼성화재	25,367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셀트리온	29,309	AP시스템	15,120
CJ E&M	28,325	SK머티리얼즈	13,889
에스에프에이	10,656	테스	8,381
솔브레인	10,626	셀트리온	7,475
삼천당제약	9,794	심텍	5,780
AP시스템	6,588	고영	4,434
원익IPS	5,062	에프티이앤이	3,891
더블유게임즈	4,603	뉴트리바이오텍	3,865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의약품		13,063	6,535 19,597
LG화학		14,272	19,488 33,760
삼성바이오로직스		11,731	7,235 18,966
KT&G		7,920	2,537 10,457
SK네트웍스		3,636	4,564 8,200
삼성물산		4,476	2,943 7,418
현대차		476	4,298 4,774
LG생명과학		4,006	574 4,581
제일약품		188	3,806 3,995
현대제철		2,588	1,066 3,654
한솔케미칼		450	2,206 2,656

K O S D A 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디지털컨텐츠		779	1,083 1,861
통신장비		141	1,601 1,742
일반전기전자		42	710 751
아프리카TV		364	1,267 1,632
더블유게임즈		806	158 964
메디톡스		33	857 890
뉴파워프라즈마		678	106 784
인터로조		74	629 703
와이솔		547	133 680
아모텍		360	177 537
CJ프레시웨이		357	131 488
한국컴퓨터		409	52 461
동아엔텍		424	9 432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KODEX 골드선물(H)	27 일	태경화학	23 일
태경화학	22 일	골든브릿지증권	23 일
CJ대한통운	19 일	KPX케미칼	21 일
JB금융지주	17 일	ARIRANG 200선물인버스2X	20 일
롯데칠성	13 일	ARIRANG 방어주	20 일
아이마켓코리아	12 일	삼성전기	15 일
넥센	12 일	한화테크윈	14 일
종근당홀딩스	12 일	제일연마	13 일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모다이노칩	38 일	해덕파워웨이	54 일
신진에스엠	28 일	동일기연	52 일
일지테크	26 일	PN풍년	43 일
에스앤씨엔진그룹	25 일	인화정공	34 일
엔브이에이치코리아	18 일	신성델타테크	33 일
엘앤케이바이오	14 일	한국캐피탈	32 일
서원인텍	13 일	넥센테크	25 일
심텍	12 일	크로바하이텍	22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POSCO	-109,318	현대에이치씨엔	-77,267
삼성전자	-70,308	TIGER 200	-64,194
KODEX 인버스	-44,283	엔씨소프트	-45,636
LG디스플레이	-37,650	현대산업	-31,412
하나금융지주	-32,704	한화테크윈	-22,593
현대글로벌비스	-27,797	유한양행	-19,073
KODEX 200선물인버스2X	-26,862	S-Oil	-18,260
SK텔레콤	-26,243	SK하이닉스	-17,671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하나마이크론	-13,475	카카오	-11,008
DSC인베스트먼트	-9,127	CJ E&M	-10,604
마이크로프랜드	-7,453	솔브레인	-7,572
티에스인베스트먼트	-6,158	지엔코	-5,490
다나와	-5,545	원익홀딩스	-5,059
휴젤	-5,183	파라다이스	-3,820
진성티이씨	-4,766	바이로메드	-3,414
셀트리온제약	-4,212	유진테크	-3,177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전자		-26,177	1,294 -24,883
철강금속		-23,621	-126 -23,747
서비스업		-11,615	-11,066 -22,681
SK하이닉스		-5,017	-24,417 -29,433
POSCO		-22,920	-3,825 -26,745
SK이노베이션		-9,437	-14,409 -23,847
호텔신라		-3,530	-14,589 -18,120
KODEX 인버스		-8,001	-123 -8,124
현대글로벌비스		-6,160	-1,501 -7,661
현대백화점		-4,572	-2,167 -6,739
KT		-4,217	-78 -4,294
현대위아		-1,039	-2,508 -3,547
기업은행		-2,509	-830 -3,339

K O S D A 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금융		-9,140	-456 -9,596
오락,문화		-2,799	12 -2,788
연구,개발		-1,600	-1,115 -2,715
DSC인베스트먼트		-9,127	-166 -9,292
우리손에프앤지		-2,380	-78 -2,458
파라다이스		-1,430	-659 -2,089
코미팜		-923	-683 -1,606
동진썬미켈		-29	-1,040 -1,069
바이로메드		-286	-771 -1,056
에스엠		-652	-240 -892
에스티팜		-792	-38 -829
재영솔루텍		-670	-33 -703
팜스토리		-610	-81 -691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 O S P I			
종 목	주 수	금 액	
우리은행	1,837	24,471	
삼성전자	11	20,415	
POSCO	34	8,931	
신한지주	183	8,700	
삼성SDI	75	7,761	
SK하이닉스	133	6,121	
LG화학	23	5,775	
삼성바이오로직스	34	4,887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49	5,251	
CJ E&M	38	2,582	
지엔코	189	1,686	
코미팜	42	1,518	
카카오	14	1,087	
바이로메드	10	1,033	
로엔	12	914	
에스티팜	20	898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 O S P 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669	6,577,999	
SK하이닉스	32,984	1,530,441	
NAVER	1,345	1,084,069	
POSCO	2,954	784,280	
현대중공업	4,447	664,796	
KT&G	6,162	628,507	
신한지주	13,189	627,785	
KB금융	14,140	623,562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3,785	2,559,224	
카카오	8,976	695,627	
로엔	3,445	255,652	
바이로메드	1,990	208,925	
메디텍스	510	177,632	
코미팜	4,665	167,254	
컴투스	1,618	142,747	
이오테크닉스	1,369	121,128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 O S P I			
순 증		순 감	
미분류	7,927	기계	-8,543
증권	1,612	운수장비	-6,079
운수창고	554	기타금융업	-4,736
KODEX 200	5,111	두산인프라코어	-5,619
미래에셋대우	3,648	우리은행	-1,877
파워 K200	3,000	신성통상	-1,675
BGF리테일	1,582	대우건설	-1,639
현대해상	1,201	기아차	-1,598
흥아해운	953	하나금융지주	-1,525
아시안나항공	692	두산엔진	-1,291
LG유플러스	552	LG전자	-1,140
한국전력	420	한화생명	-1,108
GKL	327	삼성중공업	-1,043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순 증		순 감	
제약	3,582	기계,장비	-1,951
운송장비,부품	786	IT부품	-1,357
종이,목재	448	오락,문화	-1,194
셀루메드	2,408	파라다이스	-1,163
CMG제약	1,359	홈엔터테인먼트	-678
보성파워텍	620	대아티아이	-556
국일제지	483	에스코넥	-392
광림	459	인터플렉스	-314
카카오	428	서한	-311
오텍	310	스펙코	-297
에프티이앤이	265	유지인트	-282
아이이	249	컴투스	-249
홈캐스트	240	우리조명	-246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2/13(화)	12/14(수)	12/15(목)	12/16(금)	12/19(월)
외국인	10,530.6	706.2	355.7	112.0	176.9	-3.4	67.8	2.5
기관계	-5,000.3	554.3	-377.1	-14.7	-189.0	66.0	-162.1	-77.2
(투신)	-6,192.9	-534.7	-366.9	-101.6	-134.4	-45.5	-41.2	-44.2
(연기금)	3,150.3	692.8	289.8	-15.8	70.1	142.6	62.9	30.0
(은행)	-997.3	-41.1	-9.8	-6.6	-1.0	0.4	6.6	-9.2
(보험)	928.0	-131.1	-168.0	-31.7	-84.6	-29.1	-18.7	-3.9
개인	-8,499.1	-1,338.4	-52.8	-102.5	13.2	-67.7	25.4	78.7
기타	2,968.8	78.0	74.2	5.3	-1.1	5.1	68.9	-4.0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3	2014	2015	12/12(월)	12/13(화)	12/14(수)	12/15(목)	12/16(금)
KOSPI	2,011.3	1,915.6	1,961.3	2,027.2	2,036.0	2,036.9	2,036.7	2,042.2
고객예탁금	14,211.8	15,842.5	22,695.6	21,529.2	21,322.8	21,743.7	22,367.5	21,595.8
(증감액)	-3,802.5	1,630.7	6,853.1	632.5	-206.4	420.9	623.8	-771.7
(회전율)	29.9	34.0	28.8	31.0	35.6	30.5	28.1	35.3
실질예탁금증감	-10,123.5	-2,003.0	7,687.7	-35.3	-394.6	276.2	420.1	-784.8
신용잔고(KOSPI)	2,300.6	2,542.3	3,035.6	2,867.6	2,869.6	2,888.4	2,895.0	2,903.8
신용잔고(KOSDAQ)	1,893.2	2,537.5	3,491.2	3,626.8	3,631.6	3,648.8	3,676.5	3,697.7
미수금	92.9	117.6	151.0	108.4	100.9	96.3	96.2	98.1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12/12(월)	12/13(화)	12/14(수)	12/15(목)	12/16(금)
전체주식형	74,310	-6,533	-699	46	12	21	-97	30
(ex.ETF)		-6,979	-483	-47	-37	-102	-83	-16
국내주식형	56,611	-5,828	-645	55	16	27	-85	31
(ex.ETF)		-6,239	-429	-37	-33	-96	-71	-15
해외주식형	17,699	-705	-54	-9	-4	-6	-13	-1
(ex.ETF)		-740	-54	-9	-4	-6	-13	-1
주식혼합형	8,094	-141	-41	-9	-5	-9	-8	-4
채권혼합형	27,137	-3,647	-569	-71	-25	-89	-48	-35
채권형	105,634	16,282	-1,942	-182	-138	-355	-519	-181
MMF	121,978	27,282	4,639	-657	730	380	764	2,34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2/13(화)	12/14(수)	12/15(목)	12/16(금)	12/19(월)
한국	9,244	604	304	96	152	-3	57	2
대만	10,491	578	131	108	23	45	-45	-
인도	4,038	-115	-239	-108	-71	-60	-	-
인도네시아	1,141	-386	-183	-18	-23	-47	-95	-
태국	2,175	-52	-146	-45	-4	-41	-55	-
남아공	-8,551	-149	-101	-5	29	-124	-	-
필리핀	171	-103	-78	-22	-2	-36	-19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분	2015년말	12/13(화)	12/14(수)	12/15(목)	12/16(금)	12/19(월)
회사채 (AA-)	2.11	2.15	2.12	2.16	2.15	2.16
회사채 (BBB-)	8.06	8.27	8.24	8.28	8.27	8.28
국고채 (3년)	1.66	1.67	1.64	1.69	1.68	1.69
국고채 (5년)	1.81	1.90	1.83	1.88	1.86	1.87
국고채 (10년)	2.08	2.20	2.13	2.19	2.16	2.17
미 국채 (10년)	2.27	2.47	2.57	2.59	2.59	-
일 국채 (10년)	0.27	0.08	0.08	0.08	0.08	-
원/달러	1,172.50	1,167.00	1,169.70	1,178.50	1,183.90	1,186.90
원/100엔	972.63	1,014.43	1,018.02	997.71	1,001.95	1,004.49
엔/달러	120.55	115.04	114.90	118.12	118.16	118.16
달러/유로	1.09	1.06	1.06	1.04	1.04	1.04
DDR3 1Gb (1333MHz)	1.00	1.14	1.14	1.15	1.15	-
DDR3 2Gb (1333MHz)	1.13	1.45	1.46	1.46	1.46	-
NAND Flash 16Gb (MLC)	1.46	1.86	1.86	1.86	1.86	-
CRB 지수	176.81	193.45	191.78	190.47	192.60	-
LME 지수	2,217.9	2,770.7	2,791.1	2,792.6	2,744.2	-
BDI	478	1,052	1,003	966	946	-
유가 (WTI, 달러/배럴)	37.04	52.98	51.04	50.90	51.90	-
금 (달러/온스)	1,060.00	1,158.55	1,162.25	1,126.95	1,131.6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2	13	14	15	16
日> 10월 핵심기계수주 MoM (4.1%, 1.1%, -3.3%) 11월 PPI YoY (-2.2%, -2.3%, -2.7%) 10월 3차 산업 지수 MoM (0.2%, 0.3%, -0.1%)	中> 11월 광공업생산 YoY (6.2, 6.1%, 6.1%) 11월 소매판매 YoY (10.8%, 10.2%, 10.0%) 유럽> 12월 ZEW 서베이 예상 (18.1, n/a, 15.8)	美> FOMC 금리 결정 (0.75%, 0.75%, 0.5%)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4.0%, n/a, -0.7%) 11월 소매판매 추정 MoM (0.1%, 0.3%, 0.8%) 11월 광공업 생산 MoM (-0.4%, 0.1%, 0.0%) 日> 4Q 단칸 대형 전체 산업 Capex (5.5%, 6.1%, 6.3%) 10월 광공업생산 MoM (0.0%, n/a, 0.1%) 中> 11월 통화공급 M2 YoY (11.4%, 11.5%, 11.6%)	韓> 금융통화위원회 (1.25%, 1.25%, 1.25%)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254, 255, 258) 11월 CPI MoM (0.2%, 0.2%, 0.4%) 12월 마켓 미국 제조업 PMI (54.2, 54.5, 54.1) 日> 12월 닛케이 PMI 제조업 (51.9, n/a, 51.3) 유럽> 12월 마켓 유로존 제조업 PMI (54.9, 53.7, 53.7)	美> 11월 주택착공건수(천건) (1090, 1230, 1323) 유럽> 11월 CPI YoY (0.6%, 0.6%, 0.6%) 11월 CPI 근원 YoY (0.8%, 0.8%, 0.8%)
19	20	21	22	23
	韓> 11월 PPI YoY (n/a, n/a, -0.2%)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n/a, n/a, -4.0%) 日> 10월 전체산업 활동지수 MoM (n/a, 0.1%, 0.2%)	美> 3Q GDP 연간화 QoQ (n/a, 3.3%, 3.2%) 11월 기존주택매매(백만) (n/a, 5.52, 5.6)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254) 유럽> 12월 소비자기대지수 (n/a, n/a, -6.1)	美> 11월 선행지수 MoM (n/a, 0.2%, 0.1%) 11월 개인소비지수 MoM (n/a, 0.5%, 0.3%)
26	27	28	29	30
	日> 11월 CPI YoY (n/a, n/a, 0.2%) 11월 유효구인비용 (n/a, n/a, 1.40) 11월 실업률 (n/a, n/a, 3.0%)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n/a, n/a, n/a) 12월 소비자기대지수 (n/a, 107.0, 107.1)	美> 11월 도매재고 MoM (n/a, n/a, -0.4%)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日> 11월 광공업생산 MoM (n/a, n/a, 0.0%) 유럽> 11월 M3 통화공급 YoY (n/a, n/a, 4.4%)	韓> 12월 CPI YoY (n/a, n/a, 1.3%) 美> 12월 시카고 구매자협회 (n/a, 57.8, 57.6)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